



# 대검찰청

## 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# 보도자료

2014. 4. 30.

자료문의 : 국제협력단, 형사2과  
전화번호 : 02-535-0709  
주책임자 : 국제협력단장 허철호  
형사2과장 손영배

### 제 목

## 검찰, 중국 공안부안 실시간 수사 공조체제 구축 - 대검찰청 · 중국 공안부 수사협의체 구성 합의 -

-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2014. 4. 28.(월)~29(화)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공안부 부부장과 최고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수사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
- 특히 2014. 4. 29.(화) 중국 공안부와 한중수사협의체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“실무협력에 관한 합의서”를 체결하고 제1회 한중수사협의회를 개최하였음
-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① 대검찰청, 중국 공안부 국제합작단과의 Hot-Line을 통한 실시간 수사 공조체제 구축 ② 양자 간 연 2회 수사공조 정기회의 개최 ③ 개인정보범죄(보이스피싱, 해킹) 등 주요사건 대상 수시 합동업무팀 구성 및 공조수사 ④ 상호간 인력교류 및 과학수사기법 공동연구 등임
- 이로써 중국 도피자 송환 등 사후 공조뿐만 아니라 특히,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수사중인 개인정보 범죄 관련 중국 현지 단속, 실시간 수사정보 교환 등 실질적인 수사공조의 기반을 마련

# 1

## 합의서 체결 배경 및 의의

- 보이스포싱, 불법 사이버도박, 개인정보유출 등 범치는 지능적·조직적·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국내 대응만으로는 범죄의 근원적 척결에 한계가 있음
- 그리하여 2011. 1. 대검은 중국 공안부와 “형사법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”를 체결하고 보이스포싱 범죄 단속, 도피 범죄인 강제송환 등에서 실질적 수사공조를 이루어 왔음
  - 대검은 한국내 보이스포싱 사건 피해자료 등을 중국 공안부에 제공, 중국 공안부로 하여금 2011. 3. 중국내 보이스포싱 조직 10여명을 검거하고, 2012. 5. 한국인 51명을 포함한 보이스포싱 조직을 단속, 2년~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음
  - 또한,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를 통하여 2012. 5.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공범 2명, 2014. 3. 100억대 횡령사범 등 다수의 범죄인을 중국인으로부터 강제 송환하였음
- 그러나, 범죄 발생 후 범인 검거 등 사후적 공조가 대부분이어서 중국내 공범에 대한 신속한 단속 및 검거,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국내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중국 공안부와의 실시간 수사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됨
- 그리하여, 대검과 중국 공안부는 2012. 7. 명젠주 당시 중국 공안 부장의 방한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금번에 한중수사협의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“실무협력에 관한 합의서”를 체결하게 된 것임

- 본 합의서 체결은 기존의 사건 종결 후 또는 공판 단계에서 여죄나 보강 증거 확보 또는 관련 범죄인 인도 등 사후적 공조 수사 방식에서 범죄 발생 시 실시간으로 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초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음

※ 중국 공안은 2012. 5. 대만, 태국, 말레이시아 등과 공조 수사하여 현지에서 482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(중국인 177명, 대만인 286명)을 체포하고 중국인 용의자 126명을 베이징으로 압송하는 등 공조수사 경험이 풍부함

- 그리고, 이번 대검 차장검사의 방중 기간 중 도피 범죄인 신병인도 비망록을 작성하고, 2012. 거액의 고객예금을 횡령한 후 중국으로 밀항한 모 저축은행 前이사 A○○, 2006.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한 B○○을 금일 강제송환 함

## 2

## 협약 내용

- 대검 차장검사는 중국 공안부 명홍웨이 부부장을 만나 합의서 체결은 대검과 중국 공안부의 수사공조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강력한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
- 합의서 체결 이후 개최된 제1회 한중수사협의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 주무과장인 대검 형사2과장은 2012.~2013. 한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 중국 관련 범죄 46건에 대한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를 중국 공안부에 전달하고 단속을 요청하였음

- 위 46건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가입자 또는 통신 IP가 중국에 존재하는 사건들로서 이 중 4건은 한국 내 인출책 등 하부공범만 검거되었고, 대부분 주범 등은 검거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음
- ※ 주로 길림성(17건), 하북성(8건), 산둥성(6건) 등이 근거지였으며, 은행 직원, 경찰, 친인척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(30건), 문자메세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(12건),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 파밍(4건) 등 다양한 방법임
-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현재 수사중인 인터넷 도박, 게임머니 환전,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범죄사건의 **도피 범죄자 검거, 한국 검찰과 중국 공안의 합동 단속**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함
- 중국 공안부는 중국 내 범죄근거지 단속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, 향후 구체적인 사건에서 합동단속 및 수사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함
-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도 부패범죄수사, 범죄수익환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

### 3

## 향후 계획

- 현재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일선 지점에서 수사 중인 중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사담당자를 포함한 **합동업무팀을 빠른 시일 내에 수시로 구성**, 중국 내 근거지의 공동 단속 등 실질적 수사 공조를 추진
- ※ 합동업무팀 : 중국어로 “연합공작조(聯合工作組)”라고 하여 수사를 포함한 관련 업무 수행 예정
- 중국 공안부, 최고인민검찰원과의 지속적 협력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, 개인정보유출 등 초국가범죄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노력